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제 2권 2호 (2014. 8) pp. 43~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Vol. 2 Iss. 2 (Aug, 2014)

치위생학과 학생과 인문·자연계열 학생의 취업준비 실태와 인식도 조사

문소정, 박수경[1], 정원균†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치위생학과, [1]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위생학과

Current employment preparation of the students in dental hygiene, art and humanity, and natural science

So-Jung Mun, Su-Kyung Park[1], Won-Gyun Chu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Wonju, 220-701, Korea
[1]Department of Dental Hygie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compare the current employment preparation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regular university students. and to use the results as reference data to help dental hygiene students choose and prepare for their future career paths. A survey a total of 324 students including fourth year dental hygiene students, as well as liberal arts and life science students at the same school. Approximately 50% of dental hygiene majors sought employment in a clinical setting after graduation, while 60% of liberal arts and life science majors sought employment in a corporation. Fewer dental hygiene majors were preparing for English or certifications than liberal arts or life science majors. Furthermore, students who sought employment in a corporation had the most employment preparation such as English training and certification. In today's world where dental hygienists are entering various fields of, efforts to develop the field of dental hygiene and its education process will be needed in order for dental hygiene graduates to compete with not only other graduates, but also individuals from various fields.

Key words : Dental hygiene, employment preparation, employment stress, liberal arts, life sciences, preferred career path

색 인 : 치위생학과, 취업준비활동, 희망진로, 취업 스트레스, 인문계열, 자연계열

교신저자: 정원균
(220-701)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관 214호
Tel: (033) 741-0392, Fax: (033) 735-0391, E-mail: wgchung@yonsei.ac.kr
투고일자: 2014. 7. 17. 심사일자: 2014. 7. 17. 게제확정일자: 2014. 8. 13.

1. 서론

우리나라의 치위생교육은 1965년 연세대학교 의학기술련원의 치과위생사 과정을 시작으로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1). 2002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4년제 학부 과정의 치위생학과가 개설되어 2012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79개교에 치위생(학)과가 개설되었으며, 매 년 입학정원 4,855명으로 한 해에 5천명에 가까운 신규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면허 치과위생사의 수가 51,546명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였다(2). 2006년도부터는 학사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치과위생사의 보다 다양한 사회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진출을 하기 위하여 보다 폭넓은 소양을 쌓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행능력을 갖추어 다른 전문직과 견줄 수 있는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에 적절한 취업 준비를 하며, 폭넓은 교육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 4).

현재 치위생(학)과 대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로는 취업에 대한 인식, 만족도, 선호도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으며, 취업 관련 스트레스나 해외 취업에 관한 의사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4-6). 하지만,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 준비 현황을 파악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현재 취득 자격증, 희망 근무지역, 희망연봉 등을 조사하였으며(4), 졸업예정자의 진로계획과 직업관에 대해 조사하였다(5). 치위생학계에서는 다양한 사회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학생들이 리더십, 영어능력,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능력, 행정 및 경영능력 등 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3), 특히, 해외취업 시에는 외국어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6).

일반계열의 대학생 취업 준비 현황과 관련된 연구는 취업준비행동과 관련된 여러 요인, 진로준비행동검사 도구를 활용한 조사 등 비교적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보고 하였다(7-10). 그러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희망진로와 취업준비 현황, 취업스트레스 등을 보고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과거 치과위생사가 진출 할 수 있었던 취업의 장인 대학병원이나 치과 병·의원과 같은 임상현장 뿐 아니라 치과의료산업체, 대학원 진학, 보건직 공무원, 보건관련 연구기관, 해외 취업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 간의 경쟁 뿐 아니라 타 전공의 학생들과의 경쟁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따라서 폭 넓은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실제로 취업에 필요한 준비과정과 역량이 어느 정도 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와 타 전공의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실태와 인식도를 비교하여 향후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경기, 인천, 강원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치위생학과가 개설되어있고, 최고학년인 4학년이 재학 중인 학교를 편의추출 하였다. 4개 학교의 치위생학과 4학년 학생 170명과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인문/자연계열 학생 154명, 총 3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조사 방법

해당 학교의 치위생학과 학생은 학과에 요청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연구자가 학교를 방

문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학생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교에 방문하여 무작위추출을 하였으며, 4학년임을 확인 후에 설문을 요청하였고 연구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설문 조사에 동의를 얻은 후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3년 4월~5월이었다.

연구결과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치위생학과와 학위과정과 진로가 비슷한 보건계열, 일반학과와 비교하였을 때 학위과정과 진로가 상이한 예체능 계열 학생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2.2. 설문 내용

설문내용은 취업에 대한 고민 여부와 고민의 내용, 졸업 후 희망진로와 세부항목 별 취업준비활동의 필요성,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취업준비현황(세부항목 별로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함), 그리고 일반적인 특성인 연령, 성별, 학년, 전공으로 총 25문항이었다. 취업에 대한 인식도는 취업에 대한 고민과 졸업 후 희망진로, 세부항목 별 취업준비활동의 필요성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취업준비현황은 세부항목 별 취업준비현황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를 위하여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고안하였다. 설문지는 연구대상과 동일한 범위의 대학생 5명을 통하여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이해가 어렵거나 모호한 문장을 수정 및 보완하여 확정하였다.

2.2.3.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성별, 연령, 전공에 따른 취업에 대한 인식과 희망진로, 현재 진행 중인 취업준비활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하였고, 취업준비활동의 필요성은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윈도우용 통계 프로그램 SPSS 20.0 Ver. (SPSS Inc., Chicago)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 중 여자가 77.5%로 남자보다 많았으며, 만 연령은 20-22세가 62.0%로 가장 많았다. 치위생학 전공자가 52.5%이었으며 인문계열 22.5%, 자연계열 전공자가 25.0%이었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구분	N(%)
성별	남자	73(22.5)
	여자	251(77.5)
연령	20-22	201(62.0)
	23-25	107(33.0)
	≥26	16(4.9)
전공분야	치위생학	170(52.5)
	인문계열	73(22.5)
	자연계열	81(25.0)
총합		324(100.0)

Frequency analysis

3.2. 취업에 대한 고민과 내용

전체 대상자의 88.3%가 취업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다. 고민을 하는 이유 중 자신의 커리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유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 경쟁을 하기가 두렵다는 이유는 12.2%로 가장 적었다. 전공에 따라 취업에 대하여 고민하는 이유에 차이가 있었는데, 치위생학 전공자는 적성은 알지만 취업할 곳을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취업 경쟁이 두렵다는 응답이 6.7%로 가장 적었다. 이에 반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전공자는 자신의 커리어 부족이 고민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p<0.001$)(표 2).

<표 2> 취업에 대한 고민과 그 내용

N(%)

변수	구분	취업에 대한 고민	고민의 내용					
			취업 경쟁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커리어 부족	적성이 분명치 않음	취업할 곳을 정하지 못함	기타	p-value
성별	남자	61(83.6)	9(14.8)	21(34.4)	16(26.2)	13(21.3)	2(3.3)	0.453
	여자	225(89.6)	26(11.6)	81(36.0)	51(22.7)	65(28.9)	3(0.9)	
연령	20-22	183(91.0)	18(9.8)	67(36.6)	46(25.1)	50(27.3)	2(1.1)	
	23-25	89(83.2)	15(16.9)	30(33.7)	20(22.5)	23(25.8)	1(1.1)	0.400
	≥26	14(87.5)	2(14.3)	5(35.7)	1(7.1)	5(35.7)	1(7.1)	
전공분야	치위생학	149(87.6)	10(6.7)	37(24.8)	42(28.2)	57(38.3)	3(2.0)	
	인문계열	65(89.0)	14(21.5)	31(47.7)	12(18.5)	8(12.3)	0(0.0)	<0.001*
	자연계열	72(88.9)	11(15.3)	34(47.2)	13(18.1)	13(18.1)	1(1.4)	
총합		286(88.3)	35(12.2)	102(35.7)	67(23.4)	78(27.3)	4(1.4)	

*p<0.05 by Chi-square test

3.3. 졸업 후 희망 진로

취업 후 희망 진로는 전체 대상자의 35.5%가 기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기관이 3.1%로 가장 적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기업체를 선호하였고(61.6%), 23세 이상의 대상자는 22세 이하의 대상자에 비하여 기업체 선호도가 높았다. 전공에 따른 차이도 나타내었는데, 치위생학 전공자는 임상 치과위생사를 선호하는 비율이 51.8%로 높았으며, 연구기관이 2.9%로 가장 적은데 반하여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전공자는 기업체가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p<0.001)(표 3).

<표 3> 졸업 후의 희망진로

N(%)

변수	구분	대학원	기업체	연구기관	공무원	임상	기타	p-value
성별	남자	8(11.0)	45(61.6)	1(1.4)	10(13.7)	4(5.5)	5(6.8)	<0.001*
	여자	19(7.6)	70(27.9)	9(3.6)	50(19.9)	92(36.7)	11(4.4)	
연령	20-22	15(7.5)	48(23.9)	9(4.5)	45(22.4)	77(38.3)	7(3.5)	
	23-25	10(9.3)	59(55.1)	1(0.9)	14(13.1)	17(15.9)	6(5.6)	<0.001*
	≥26	2(12.5)	8(50.0)	0(0.0)	1(6.2)	2(12.5)	3(18.8)	
전공분야	치위생학	14(8.2)	19(11.2)	5(2.9)	36(21.2)	88(51.8)	8(4.7)	
	인문계열	5(6.8)	46(63.0)	2(2.7)	12(16.4)	4(5.5)	4(5.5)	<0.001*
	자연계열	8(9.9)	50(61.7)	3(3.7)	12(14.8)	4(4.9)	4(4.9)	
총합		27(8.3)	115(35.5)	10(3.1)	60(18.5)	96(29.6)	16(4.9)	

*p<0.05 by Chi-square test

3.4. 취업준비활동의 필요성

취업을 준비하는 각 활동의 필요성을 4점 만점의 평균 점수로 비교하였다. 전체 대상자를 분석하였을 때 어학이 3.4점으로 가장 높았고 동아리 활동이 2.5점으로 가장 낮았다. 남학생과 25세 이하의 대학생들이 대외활동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p<0.05$). 치위생학과 전공자가 인문 및 자연계열 전공자보다 자격증과 대외활동의 필요성을 적게 인식하고 있었다(표 4).

<표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활동의 필요성

M±SD

변수	구분	어학	학점	자격증	동아리	대외활동	취업지원 프로그램
성별	남자	3.4±0.5	3.0±0.6	3.2±0.7	2.4±0.8	3.1±0.6	2.7±0.7
	여자	3.4±0.6	3.0±0.6	3.0±0.7	2.5±0.7	2.8±0.7	2.6±0.7
	p-value	0.953	0.210	0.128	0.920	0.001*	0.632
연령	20-22	3.4±0.6	3.1±0.6	3.1±0.7	2.5±0.7	2.8±0.7[ab]	2.6±0.6
	23-25	3.5±0.6	2.9±0.6	3.1±0.6	2.4±0.8	3.0±0.7[a]	2.7±0.8
	≥26	3.2±0.5	2.9±0.3	3.1±0.6	2.4±0.7	2.6±0.6[b]	2.6±0.6
	p-value	0.178	0.119	0.769	0.944	0.003**	0.694
전공분야	치위생학	3.3±0.6	3.1±0.6	2.9±0.7[a]	2.5±0.7	2.8±0.6[a]	2.6±0.8
	인문계열	3.5±0.6	3.0±0.6	3.3±0.6[b]	2.4±0.8	3.1±0.6[b]	2.8±0.7
	자연계열	3.5±0.6	3.0±0.6	3.3±0.7[b]	2.4±0.8	3.0±0.7[ab]	2.7±0.7
	p-value	0.054	0.397	<0.001**	0.885	0.002**	0.061
총합		3.4±0.6	3.0±0.6	3.1±0.7	2.5±0.7	2.9±0.7	2.6±0.7

*$p<0.05$ by independent t-test
**$p<0.05$ by one-way ANOVA
[a,b]denotes the same subgroup by scheffé post-hoc analysis

3.5. 현재 진행 중인 취업준비활동

현재 하고 있는 취업준비활동 중 자격증 취득이 전체 대상자의 6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영어 준비(59.9%)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은 29.3%로 가장 낮았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취업준비활동의 차이는 없었으나, 전공 분야에 따른 차이는 있었는데, 치위생학과 전공자는 인문, 자연계열 전공자에 비하여 영어 준비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는 적게 하고 있었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이용도 적게 하고 있었다. 반면에 취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은 37.1%로 타 전공자에 비하여 많이 하고 있었다($p<0.05$).

또한 희망 진로에 따라 현재 하고 있는 취업준비활동에 차이가 있었는데, 임상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증을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었고(64.2%),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영어공부를(63.3%), 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영어공부(71.3%)와 자격증 취득 준비(72.2%)를 비슷하게 많이 하고 있었다.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역시 영어공부(55.6%)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p<0.05$)(표 5).

<표 5> 전공분야와 희망진로에 따른 취업준비활동

N(%)

변수	구분	영어	자격증	동아리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관련 사이트 이용
전공분야	치위생학	85(50.0)	99(58.6)	63(37.1)	50(29.4)	71(41.8)
	인문계열	53(72.6)	48(65.8)	15(20.5)	26(35.6)	34(46.6)
	자연계열	56(69.1)	61(75.3)	17(21.0)	33(40.7)	49(61.2)
	p-value	0.001*	0.034*	0.032*	0.190	0.016*
희망진로	임상	44(45.8)	61(64.2)	34(35.4)	31(32.3)	33(34.4)
	공무원	38(63.3)	35(58.3)	19(35.4)	21(35.0)	31(51.7)
	기업체	82(71.3)	83(72.2)	30(26.1)	46(40.0)	68(59.6)
	연구기관	6(60.0)	8(80.0)	5(50.0)	5(50.0)	5(50.0)
	대학원	15(55.6)	13(48.1)	6(22.2)	5(18.5)	11(40.7)
	기타	9(59.9)	8(50.0)	1(6.2)	1(6.2)	6(37.5)
	p-value	0.012*	0.002*	<0.001*	0.041*	0.011*
Total		194(59.9)	208(64.4)	95(29.3)	109(33.6)	154(47.7)

*p<0.05 by chi-square test

4. 고안

본 연구는 인문 및 자연계열 학생들과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인식도와 취업준비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학생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졸업예정자의 대부분(88.3%)이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고민을 하는 이유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학생은 자신의 커리어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약 47%로 가장 많았으나, 치위생학과 학생은 취업할 곳을 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가 38.3%로 가장 많았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입학동기를 살펴보았을 때 절반 이상이 '취업이 잘 되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하여 입학하였다는 응답도 20% 이상을 차지하여(11,12),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여 전문직이 되고,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학생에 비하여 취업준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대신 치위생학과 학생은 어디에 취업을 할 것인지를 정하지 못하거나, 전문직이니만큼 본인의 적성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그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이겠으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학업성취도가 좋거나 대학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취업 스트레스가 낮았다. 이는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력과 흥미가 취업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취업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13).

기존에 조사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희망 진로는 다수가 치과병(의)원과 보건소이었으며 대학원 진학이나 기업체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극소수이었다(11). 본 연구 조사 결과에서 또한 치위생학

과 학생 중 임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이 약 50%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으나, 기존 연구에 비하여 기업체(11.9%)나 대학원(8.2%)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최하나 등은 학사학위과정 치위생학과 졸업생이 전문학사학위 과정 졸업생에 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의 치위생학과가 개설된 일차적인 목표인 교수요원양성과 치과위생사의 전문성 제고에 일치하는 결과라고 언급하였다(5,14). 본 연구 또한 일부 4년제 치위생학과에 재학중인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앞서 언급한 학사학위 과정의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하지 않았으나 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점을 조사한 기존 연구를 보면 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가 전문학사학위 과정 졸업예정자보다 전문성과 자기발전을 취업 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5), 앞서 언급한 학사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보다 근접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항목은 어학이 4점 만점에 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점과 자격증이 그 뒤를 이었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대외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인문계열과 지연계열 학생들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에 비하여 자격증과 대외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하고 있는 취업준비활동은 달랐는데, 전체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영어 준비였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인문 및 자연계열 학생들에 비하여 영어 준비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는 적게 하고 있었으나, 취업을 위한 동아리 활동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본인의 커리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보다 취업할 곳을 정하지 못하여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행동일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현재 치위생(학)과에서 교육과정 내에 치과 코디네이터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일 것이라 사료되며(4), 인문 및 자연계열 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자신의 커리어를 갖추기 위하여 영어와 자격증 등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희망진로에 따라 현재 하고 있는 취업준비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임상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격증을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영어공부였다. 임상으로 진출할 경우 코디네이터, 문서 관리, 보험청구사 자격증 등 자격을 갖출 경우 취업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자격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의료가 국제화되면서 외국인 진료가 늘어나고 있어 영어회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현상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기업체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다른 직종에 비하여 영어공부와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월등히 높았다. 이는 현대사회가 '취업전쟁' 사회임을 약하게나마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겠다. 본인의 커리어를 쌓기 위하여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미국치과위생사협회(ADHA)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임상가(Clinician), 협력자(Corporate), 공중보건가(Public health), 연구자 (Researcher), 교육자(Educator), 관리자(Administrator), 사업가(Entrepreneur)의 7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15). 그 중 치과위생사의 가장 주된 역할은 임상가의 역할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졸업 후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가 임상에 치우쳐 있으나, 앞으로 치과위생사가 여러 역할을 균형 있게 해 나가기 위하여 사회의 각 분야로 진출하고 그 존재를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학생들

의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3). 즉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이나 능력 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12), 학생들과 치과위생사는 자기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16). 또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어학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4).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특성화선택과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여 사회진출을 다양화하고 시야를 넓히기 위함이다.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이러한 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의 만족도와 주관적인 효과를 측정한 바 있으므로(3,17,18),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의 학생만을 조사하여 일반화하여 결론을 내는 데에 한계가 있으나,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어, 미래의 치과위생사가 자신의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와 인문 및 자연계열 대학생 324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실태와 인식도를 비교하여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근거가 되고자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위생학 전공 학생과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 전공 학생 모두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으나, 인문 및 자연계열 학생들은 본인의 커리어에 관한 고민을 약 47%로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나,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취업할 곳을 정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약 38%로 가장 많았고, 취업 경쟁에 대한 두려움은 6.7%로 가장 낮았다.
2.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절반가량이 임상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약 11%는 기업체 취업을 원하고 있는 등 이전의 연구에 비하여 희망하고 있는 진로가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인문 및 자연계열 학생들은 약 60%가 기업체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취업준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문 및 자연계열 학생들이 치위생학과 학생들에 비하여 영어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자격증과 대외활동의 중요성 또한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3.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치위생학 전공자가 희망하는 진로가 과거에 비하여 다양해지고 있고, 치과위생사가 다양한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는 다방면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정원균, 김응권, 최은미, 정재연, 김남희, 장선옥 외 3인. 우리나라 치위생학 학문체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한치과위생사협회·한국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2009:14-32.
2.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2013 한국치과의료연감. 서울: 대한치과의사협회;2013.
3. 김해선, 장선옥, 한선영, 최진아, 정원균. 치위생학과 학생의 사회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의 평가. 치위생과학회지 2008;8(4):247-253.
4. 황지영, 양송이, 손가연, 원복연, 오상환.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취업준비 및 선호도에 관

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2013;13(4):677-684.
5. 최하나, 이수영, 조영식. 학사과정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의 진로계획과 직업관. 치위생과학회지 2011;11(1):7-14.
6. 유자혜, 김영진, 노희진. 치과위생사의 해외취업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치위생학회지 2013;13(6):933-939.
7. 유연화, 임경애. 3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생의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011;15(1):461-484.
8. 박기문, 이규녀. 대학생의 진로개발과 취업준비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2009;34(2):103-127.
9. 이형석, 박완성. 대졸 취업과 관련된 구직활동 요인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008;21(3):105-117.
10. 나태균, 정양식. 외식조리 관련 전공자의 학년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진호중심 행동의 차이분석 -충청도에 위치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2011;17(4):238-250.
11. 김진수, 임근옥. 일부 치위생과 재학생의 학과 선택 만족도 및 취업의식 변화. 한국치위생학회지(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6;6(2):103-113.
12. 김경미, 정영란, 한화진. 치위생과 학생의 취업가치관과 취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9;9(2):1-10.
13. 신선행.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2010;10(4):663-670.
14. 조영식. 학사치과위생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비교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5;5(4):251-258.
15. Roles_Dental_Hygienist.[online] https://www.adha.org/.../714112_DHiCW 2014.07.01.
16. 한수진, 이선미, 임미희. 예비치과위생사의 취업에 관한 의식 조사. 한국치위생학회지(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7;7(4):583-594.
17. Sagen HB, Dallam JW, Laverty JR. Effects of career preparation experiences on the initial employment success of college graduat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2000;41(6):753-767.
18. Gault J, Redington J, Schlager T. Undergraduate business internships and career success: Are they related?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2000;22(1):45-53.